



Russia

블라디보스토크지사

안정적 성장세 보이는 러시아의 커피시장

지속 성장해온 러시아의 커피시장

일반적으로 러시아 커피시장도 한국의 커피시장 못지않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취향이 바뀐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커피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57.6%에 달했다. 커피시장이 커짐에 따라 소매 체인의 적극적인 개발과 커피전문점의 증가, 커피 자판기 활성화, 온라인 구매와 같은 새로운 유통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커피 시장의 성장은 10년 전 러시아에서 1인당 소비되었던 커피의 양과 비교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2001년에는 한해 1인당 커피소비량이 400g이었고, 2016년에는 1.35k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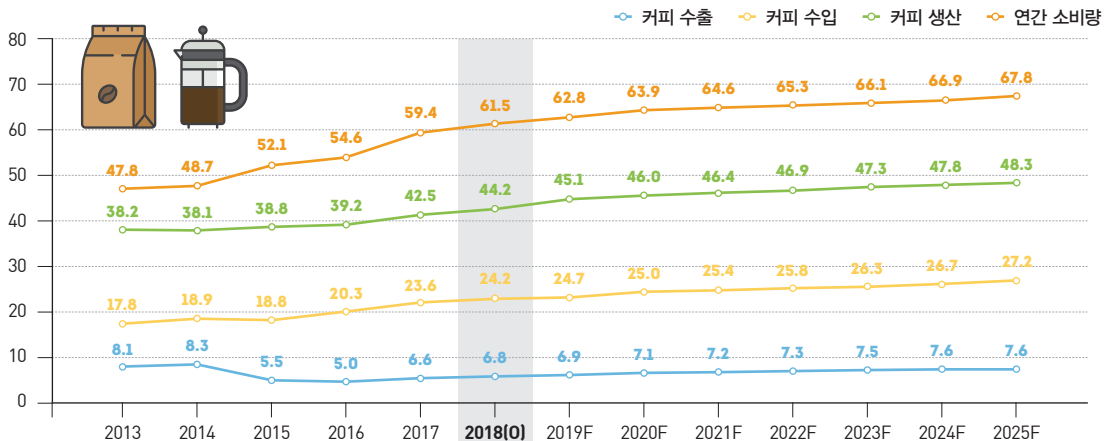
현재 러시아인이 선호하는 커피의 주요 유형은 즉석 커피로, 1인당 소비량으로만 본다면 인스턴트 커피 부문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커피시장은 연간 6.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커피 시장은 견재

기후조건으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는 커피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의 커피 생산은 수입 관세가 없는 볶지 않은 수입 콩을 러시아 내에서의 가공한다는 의미다. 러시아 커피시장은 러시아에서 가공된 커피로 50% 이상이 구성되며 나머지는 외국제품이다. 2017년에는 커피의약 15.4%와 인스턴트 커피 21.3%가 주로 우크라이나, CIS 국가 및 독일로 수출되었다. 러시아 천연 커피시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긍정적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커피 원재료의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2014년 이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천연 커피의 소매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2015년 44%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실업률 증가 및 가격 인상에도 러시아인들의 커피 소비량은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러시아는 국제 커피기구의 회원이 되었다.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커피시장의 발전과 기술 개발로 국내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고 완제품 수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의 커피 시장 전망 |

(단위: 천 톤)



| 종목별 커피브랜드 등급 |

내용	순위	품명	등급
커피 원두 브랜드	1	리바짜	4.9
	2	파울 리그	4.8
	3	베르 나노	4.8
	4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4.7
	5	몰리나리	4.7
	6	카라로	4.6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1	부시도	4.9
	2	자아	4.8
	3	대사	4.8
	4	카르 트 느와르	4.7
	5	네스카페	4.6
	6	제이콥스	4.5
분쇄 커피 브랜드	1	일리	4.9
	2	줄리어스 메 이른	4.8
	3	카라 콜로 요	4.8
	4	딤메	4.7
	5	마누엘	4.6
	6	다네시	4.5
캡슐 커피 브랜드	1	네스프레소	4.9
	2	네스카페	4.8
	3	타시 모	4.7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 시장

수입 관세가 없는 북지 않은 콩을 수입하여 2018년 44만 2천 톤 규모를 주로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서 가공하고 있다. 가공된 콩은 내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벨로루시(3만 3천 톤, 48.7%), 우크라이나(1만 7천톤, 26.3%), 카자흐스탄(1만 6천 톤, 25%)등 CIS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2018년 수입 물량은 24만 2천 톤으로 전체 수급량의 8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9만 8천 톤, 40.5%), 브라질(4만 3천 톤, 17.9%), 인도네시아(2만 9천 톤, 12.3%) 등이며, 극동지역의 경우 가까운 일본, 한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다.



LAVAZZA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LAVAZZA는 커피에 호가라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풍미를 자랑한다. 러시아에서는 평균 1kg당 소매점가 1,500루블/ 온라인가 1,300루블에 판매되고 있다.



EGOIST

냉동 건조 인스턴트 커피 Egoiste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트 케냐, 기니, 콜롬비아 아라비카 품종, 로버 티카 등 고품격 원두를 블렌딩해 조화로운 맛을 선사한다. 유리 용기 제품의 가격이 100g 당 300 루블이다.



NESCAFE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Nescafe 브랜드는 이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제품이다. Nescafe Classic은 75그램 당 115루블에 판매되고 있다.



JACOBS

일반 소비자를 주 타깃으로 하는 JACOBS 커피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아미리카 품종을 블렌딩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만큼 보편적 입맛에 기댄 제품이며, 가격대는 95그램 당 180루블이다.



MAXIM

믹스커피라인을 중심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중인 한국의 맥심커피는 이미 러시아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가격대는 50g당 100루블 정도이다.



한국 믹스커피에 대한 선호 바탕으로 수출길 열어야

러시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차를 마시는 문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 커피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또한 기후 조건으로 인하여 러시아 내에서의 커피 재배는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구매 증가 추세인 인스턴트 커피(믹스커피)는 한국제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커피는 아직까지 극동지역 수출에 머물고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겨냥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면, 서부지역 진출과 나아가 러시아와 입맛이 비슷한 CIS 국가의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